



고조선의 실존문제

상식적 탐색

The Existence of the Old Choson : An Approach with Common Sense

저자 (Authors)	윤내현 Yoon, Nae-Hyun
출처 (Source)	단군학연구 (25) , 2011.11, 377-400(24 pages) Journal of Dangun Studies (25) , 2011.11, 377-400(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단군학회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58094
APA Style	윤내현 (2011). 고조선의 실존문제. 단군학연구(25), 377-40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2 11: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조선의 실존문제: 상식적 탐색

윤내현*

- | | |
|----------------------------|-----------------------|
| I. 머리말 | IV. 사회발전 단계에서의 고조선 위치 |
| II. 중국문헌에 보이는 고대의 조선 | V. 맺음말 |
| III. 청동기시대 연대로 본 고조선의 실존문제 | |

I. 머리말

필자는 일찍이 고조선의 실존과 역사상 위치에 검토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독립된 논문으로는 『사학지』 23집(1993)에 실린 바 있는데 후에 필자의 저서 『고조선 연구』(一志社, 1994)에 「사회진화상의 고조선 위치」라는 제목으로 다시 정리되었다.

필자는 위 글에서 그간 국제학계가 이룩한 국가기원에 관한 연구 동향과 성과를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 모델을 활용하여 고조선은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해 있었음을 고증하였다. 문헌기록이나 고고학 유물, 사회진화 이론 등을 통해 볼 때 고조선은 국가단계의 사회에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진입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고조선이 국가사회 단계였다면 그 실존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도 고조선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오늘날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맨 먼저 사용한 문헌은 『三國遺事』이다. 『三國遺事』 「古朝鮮」조를 보면,

<古朝鮮>: 王儉朝鮮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壇君 王儉이 있어 도읍을 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열고 朝鮮이라 일컬으니 高(堯)와 같은 시대라 하였다. 『古記』에 이르기를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칭하였다.¹⁾

고 기록되어 있다.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의 명칭은 조선인데 『三國遺事』의 저자 일연은 이를 古朝鮮이라 부르고 王儉朝鮮이라 부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조선을 고조선이라 부른 것은 오래 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고조선의 시작 연대에 대해서는 『魏書』가 편찬되던 해로부터 2천 년 전으로 중국의 堯와 같은 시대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魏書』는 오늘날 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더 이상 소상하게 알 수 없다. 고조선의 시작 연대는 『東國通鑑』에 따르면 서기전 2333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조선의 시작 연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서기전 2333년은 한국 고고학의 편년에 따르면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데 신석기시대에는 국가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동기시대는 되어야 국가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청

1) 『三國遺事』 「古朝鮮」條.

동기시대 개시를 서기전 10세기 또는 서기전 4~3세기로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논의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고조선은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고조선은 청동기시대여야 한다고 보는 점이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는 고조선은 국가였다거나 청동기시대였다고 말하지 않았다. 『삼국유사』가 편찬된 고려시대에는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나 고고학적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나라를 열었다(開國)”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國”은 오늘날 학계에서 사용하는 國家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동기시대라는 고고학 명칭과 동일한 개념일 수는 없다. 國은 다소 막연한 의미의 정치집단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漢字에서 國은 西周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문자로서 제후국의 國邑을 뜻하다가 侯國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국가라는 뜻을 지니지 않았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 말한 국은 국가 단계의 사회 집단일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단계일 수도 있다. 이 점은 고조선의 사회수준을 밝혀내는 작업을 거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이다. 고조선의 고고학적 시대도 한국 고고학의 편년이 정확하게 정리됨으로써 확인될 것이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을 신고 있는 가장 오래 한국 문헌인 『三國遺事』와 『帝王韻紀』는 고려 후기 13세기에 편찬되었다. 이 책들은 고조선 당시가 아닌 오랜 뒤의 문헌이다. 그러므로 사료로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의 저자 일연은 불교승려이고 『帝王韻紀』의 저자 이승휴는 유학자로서 그들은 학문의 경향과 목표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의 시작을 동일하게 고조선부터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조선이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닐 것임을 시사한다.

II. 중국문헌에 보이는 고대의 조선

중국 문헌에는 서기전 11세기 이전에 조선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보인다. 하나는 기자의 조선 망명과 관계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詩經』 「韓奕」편과 『潛夫論』의 내용이다.

기자의 조선 망명에 관한 기사는 『史記』와 『尙書大傳』에 실려 있다. 『史記』 「宋微子世家」에는 서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그 공로에 대해 포상하면서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따르면 당시에 조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기자가 조선으로 이주한 시기는 서주 초로서 서기전 12~11세기경이다. 그러므로 서기전 12~11세기 이전부터 조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史記』 「宋微子世家」에는 “서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기록하고 “그러나 그의 신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²⁾ 서주 무왕의 봉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의 신하여야 하는데 신하가 아니었다니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서는 『尙書大傳』 「殷傳」의 내용이 답해준다. 『尙書大傳』 「殷傳」에는 기자의 조선 이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西周 武王은 商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 , 감옥에 갇혀 있던 箕子を 석방해 주었는데 기자는 자신이 周族에 의해 풀려난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朝鮮으로 도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西周 武王은 그를 朝鮮에 봉했다.³⁾

2)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於是, 武王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

3) 『尙書大傳』 卷2 「殷傳」 <洪範>, “武王勝殷, 繼公子綠父, 釋箕子之囚. 箕子不

고 하였다.

『사기』에는 기자가 서주 무왕의 봉함을 받고서 조선으로 갔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기자는 그의 신하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상서대전』에는 무왕이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조선에 봉했다고 말함으로써 기자가 조선으로 간 것은 무왕이 그를 봉하기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지극히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기자가 조선으로 이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던 간에 기자의 조선 이주는 당시에 조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서기전 145년경에 출생하여 서기전 86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기자조선은 서기전 190년경에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겨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사마천은 위만조선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며 그가 출생하기 45년 전까지 기자조선은 존재하고 있었다. 사마천은 아버지 司馬談도 太史令의 직에 있었던 史官의 가문에서 태어나 史官을 꿈꾸며 성장하여 사관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성장 환경으로 보아 그는 기자조선에 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과 기자조선의 관계를 알게 하는 내용이 『詩經』 「韓奕」 편과 『潛夫論』에도 보인다. 『시경』 「한혁」 편에는,

키다란 저 韓城은 燕나라 군사들이 완성시킨 것,
선조가 받은 天命을 따라 많은 나라를 거느리신다.⁴⁾

라는 내용이 있다. 이 시는 서주 宣王 때의 尹吉甫 작품이라고 전해

忍爲周之釋，走之朝鮮。武王聞之，因以朝鮮封之。”

4) 『詩經』 「大雅」 <蕩之什> ‘韓奕’：“薄彼韓城，燕師所完，以先祖受命，因時百蠻。”

온다.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韓城에 대해 東漢의 王符는 『潛夫論』이라는 글에서

周나라의 제후국인 韓과는 다른 韓侯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燕나라에서 가까웠다. 그러므로 『시경』에서 말하기를 ‘키다란 저 韓城은 연나라 군사들이 완성시킨 것’이라 하였다. 그 후 한의 서쪽에서도 또한 성을 한이라 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가 衛滿에게 공벌당한 바 되어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⁵⁾

고 설명하였다.

위의 설명에 衛滿이라는 분명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위만조선을 세운 인물로 한국 고대사에 잘 알려져 있다. 『魏略』과 『後漢書』 「東夷列傳」,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등에는 서한에서 기자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은 기자의 40여세 후손인 準의 정권을 빼앗아 위만조선을 세웠고 위만의 공격을 받은 준은 해중으로 도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연나라 동쪽에 원래 한이라 불리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서쪽 즉 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기자조선이 한이라 불리면서 존속하다가 위만의 공격을 받아 멸망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나라 동쪽에 있었던 원래의 한나라는 기자조선 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한나라를 고조선으로 본다면 연나라와의 지리적 관계 및 시대 상황이 일치한다. 고대에 연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그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고조선이었음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왜 국명을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을까. 여기서 관심을 갖게 하는

5) 『潛夫論』 卷9 「姓氏志」. 『昔周宣王時, 亦有韓侯, 其國地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것은 원래 있었던 한나라(고조선)의 서쪽에 새로 등장한 기자조선도 한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조선과 기자조선을 모두 한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고조선을 한이라 부른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한이라 불렀다. 『시경』 「한혁」편과 『잠부론』에서는 통치자의 칭호인 한을 국명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고조선의 명칭이 한, 아사달, 조선 등으로 쓰이다가 점차 조선으로 통일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경』 「한혁」편과 『잠부론』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은 기자조선보다 훨씬 앞서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 관한 기록은 『管子』 「揆道」편과 「輕重甲」편 및 『山海經』의 「海內經」과 「海內北經」에서도 보인다. 『管子』 「揆道」편과 「輕重甲」편에는 춘추 초의 패자였던 桓公과 그를 보좌했던 管仲이 나눈 대화가 실려 있는데 대화 내용에 조선과 그 특산물인 표범가죽, 모피의류가 등장한다.⁶⁾ 桓公과 管仲은 서기전 7세기 초의 사람들이므로 이 시기에도 조선은 중국에 알려져 있었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 사신왕래와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山海經』의 「海內經」과 「海內北經」에는 발해 연안에 조선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산해경』은 전국시대 저술이므로 중국인들은 전

6) 『管子』의 卷23 「揆道」편에는 桓公이 管仲에게 해내에 진귀한 예물 일곱 가지가 있다는데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조선의 표범가죽도 그 한 가지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고, 권 24 「輕重甲」편에는 환공이 요즈음 외국 사신이 자주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자 관중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특산물을 비싸게 사주면 자주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선의 특산물은 표범가죽과 모피의류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다.

7) 『山海經』의 卷18 「海內經」에는 “東海의 안쪽, 北海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조선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卷12 「海內北經」에는 “조선은 列陽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燕에 속한다.”는 기록

국시대에도 조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史記』「秦始皇本紀」에는 중국을 통일한 秦나라는 조선과 국경을 접했는데 그곳은 당시 요동으로 불리어졌으며 碣石山 지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그런데 『史記』「孝武本紀」에는 서한 무제가 산동성의 泰山에서 封禪을 지낸 뒤 바다를 끼고 북쪽으로 순행하여 갈석산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보인다.⁹⁾ 진시황제와 서한 무제는 가까운 시기의 사람들이므로 위의 두 기록에 보이는 갈석산은 같은 산을 말할 것이며 그 위치로 보아 지금의 요서 서부 灤河 유역에 있는 河北省 昌黎縣의 碣石山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문헌에는 서기전 12세기 이전부터 조선이 존재했음을 알게 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그 후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쳐 고조선 말기인 진시황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서기전 12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선이라면, 그리고 기자가 망명하여 정착했던 난하 유역 갈석산 지역 동쪽에 있었던 조선이라면 그것은 고조선인 것이다.¹⁰⁾

고조선에 관한 사료는 일반적으로 중국문헌의 기록을 주된 것으로 삼는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 기록은 중국 기록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기록에는 서기전 12세기 이전에 고조선이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을 뿐 서기전 2333년 또는 서기전 24세기에 고

이 있다.

- 8) 『史記』「秦始皇本紀」 26년 조에는 진시황이 통일한 중국영토를 말하면서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조선과 접하였는데 국경은 요동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본기 2세황제조에는 대신들이 갈석산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면서 요동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이는 갈석산 국경지대인 요동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 9) 같은 내용이 『漢書』「武帝本紀」에도 보인다.
- 10) 중국 문헌에서는 고조선의 서쪽 국경은 灤河와 碣石山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秦長城(만리장성)도 같은 곳에 있었다.
윤내현,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170~250쪽.

조선이 등장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고조선은 중국역사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고조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역사 또는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필요에 따라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사적이 중국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고조선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Ⅲ. 청동기시대 연대로 본 고조선의 실존문제

고조선은 서기전 2333년(서기전 24세기)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 고고학 연대는 그 지리적 범위와 표준유물에 따라 달라진다.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해 보느냐, 고조선 영역이었던 만주와 한반도를 포괄하여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청동기문화 개시 연대를 남한에서 발굴된 청동기유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세형동검 또는 비파형동검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형동검을 기준 삼으면 서기전 4~3세기경이 되고 비파형동검을 기준 삼으면 서기전 10~15세기경이 된다.

이러한 편년은 옳지 않다. 우선 비파형동검이나 세형동검은 매우 발달한 청동기이다. 특히 세형동검은 청동기시대가 아닌 철기시대의 유물이다. 그러므로 청동기문화 개시 연대는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청동유물을 기준 삼아야 한다. 지리적 범위도 한민족이 활동했던 요서와 요동의 만주를 포괄한 고조선 영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한반도와 만주의 청동기문화 연대를 보면 북한

학자들이 가장 높은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평양의 단군릉과 대동강 유역의 청동기유적들의 연대가 서기전 30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들은 주장한다.¹¹⁾ 이 연대는 단군릉의 유골에 대한 전자상공명연대측정법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이다.¹²⁾

이에 대해 북한 학자들이 제시한 연대는 오차가 큰 전자상공명측정법을 사용한 결과임으로 그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그 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 학자들이 제시한 연대는 훗날의 재검토를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그 사용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한반도 남부에서 발굴된 청동기문화 유적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서 있는 것은 서기전 24~23세기 경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 영암군 장천리의 청동기시대 집자리 유적¹³⁾과 경기도 양수리의 고인돌 유적이 그것이다.¹⁴⁾ 이 유적들은 방사성탄소측정에 의해 연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유적의 발굴자들은 한국 학계에서 통용되어 온 청동기시대 연대나 고인돌 연대보다 너무 높게 나왔으므로 그 연대를 믿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청동기문화는 서기전 10세기, 고인돌문화 연대는 서기전 3~4세기 정도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방사성탄소측정에 의해 얻어진 연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11) 단군릉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그 연대가 1993년을 현재로 하여 5011년 전으로 확인되었다고 북한 학자들은 발표하였다.

12) 김교경, 「단군릉에서 뼈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에 대하여」 『단군릉 발굴 보고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42~52쪽.

13) 崔盛洛, 「靈巖 長川里 住居址」 2, 木浦大學 博物館, 1986, 46쪽.

14) Chan Kirl Park and Kyung Rin Yang, “KAERI Radiocarbon Measurements III” Radiocarbon, vol.16, no.2, 1974, 197쪽.

이러한 학계의 자세는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대는 추정연대로서 이보다는 방사성탄소측정 연대가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다. 당연히 방사성탄소측정으로 얻어진 연대를 사용해야 한다. 학문은 과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서와 요동 지역의 청동기문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요서의 夏家店下層文化로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서기전 2410년(서기전 25세기)으로 확인되었다.¹⁵⁾ 비파형동검문화보다 앞선 이 문화유적에서는 귀고리, 단추, 가락지, 활촉, 작은 칼 등의 소형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문화는 황하 유역에서 가장 이른 청동기문화인 二里頭文化(서기전 2200년)보다 200년 쯤 앞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와 만주를 포괄한 고조선 영역의 청동기시대 개시 연대는 북한에서 제시한 연대를 제외하더라도 서기전 25~24세기로 볼 수 있다. 이 연대는 한국문헌에 고조선의 건국연대로 전해오는 서기전 2333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다. 그러므로 고조선은 고고학적으로는 초기 청동기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사회발전 단계에서의 고조선 위치

학자들은 인류의 초기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국가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가 출현하기까지 인류사회

15) 이 연대는 赤峰市 蜘蛛山유적의 연대로서 夏家店下層文化 연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中國考古學中碳14年代數據集』文物出版社, 24쪽.

는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으며 국가사회가 그 전 단계의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지난날에는 국가 이전은 원시공동체사회 단계였다고 보았다. 국가 출현과 더불어 계층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1960대 이후 국가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류의 초기 사회는 band(遊團, 무리이동사회), tribe(村落, 씨족마을사회), chiefdom (酋邦, 고을사회)¹⁶⁾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 다음에 state(국가사회)에 이르게 된다고 보게 되었다.¹⁷⁾

물론 각 단계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tribe보다는 village라 부르는 것이 세계 각 지역에 보이는 사회 현상에 더 알맞은 표현성을 지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그간 인류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각 시기의 사회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사회의 첫 단계는 band라고 부른다. 이 단계는 이동생활을 하는 작은 혈연집단을 말한다. 대개 사냥(수렵), 고기잡이(어로), 그러모으기(채집)의 경제생활을 한다. 소유권 개념이 없는 모두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이다.

두 번째 단계는 tribe라고 부른다. 이 단계는 농경과 목축생활을 하는 지역집단으로서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는 평등사회이지만 혈연의 지위에 의한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 서열평등사

16) Chiefdom을 군장사회, 추장사회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군장사회란 중국인들이 이민족의 통치자를 알잡아 부른 칭호이다. 군장은 Chiefdom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다. 따라서 군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이 이론모델은 Elman R. Service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이론모델 가운데 가장 잘 들어맞는다. 이 점은 하버드대학의 K. C. Chang도 그의 저서 *Shang Civilization*에서 인정하였다.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2.

회라고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chiefdom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는 추장과 같은 권력자가 출현한 단계를 말한다. 몇 개의 tribe 또는 village가 연합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권력자가 출현했지만 아직 국가는 아니다. 연합체를 형성한 씨족 가운데 가장 강한 씨족의 우두머리가 추장으로 군림한다. 추장의 권력은 그가 속한 씨족의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단계에서는 재산사유제가 이루어져 구성원 사이에 빈부와 신분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종교적 권위자, 전업 기능인 등이 출현했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위의 세 단계를 거쳐 state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가 국가사회이다. 국가 단계의 사회는 앞 단계의 사회성격이 계승되면서 그것들이 한층 더 확장되고 다양화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매우 강해진다. Chiefdom 사회의 권력은 추장이 속한 씨족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나 국가사회의 권력은 법에 의해 뒷받침된다. 합법적 권력이 출현했던 것이다.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징집을 할 수가 있으며, 징세를 할 수가 있다.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진화에서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변화는 chiefdom酋邦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재산사유제의 출현이다. 이에 따라 사회신분의 차등과 경제적 빈부가 형성되었다. 국가 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한층 더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법이 제정되어 권력을 한층 강화시켰던 것이다.

사회신분과 경제적 차등이 있었음은 주거지와 무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건물을 제외한 주거용 집터나 무덤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이 확인된다든가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나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종교적 사원이나 신앙과 관계된 규모가 큰 조형물의 등장은 종교적 권위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고 전문적 기

능이 필요한 옥기 등의 가공품이나 물레를 사용한 질그릇이 등장은 전업 기능인의 출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고조선의 서부 국경이었던 灤河를 경계로 하여 그 동쪽 요서, 요동, 한반도 지역에서는 후기 신석기시대에 이러한 유적과 유물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돌곽무덤 등 돌을 사용한 무덤이 출현하고 옥기 등의 부장품이 출토된다. 이는 일반 무덤보다 신분이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러한 돌을 사용한 유적과 유물은 황하 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요서, 요동, 한반도 지역이 동일한 문화권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후기 신석기문화인 紅山文化는 옥기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요녕성 서부의 牛河梁 유적, 東山嘴 유적, 胡頭溝 유적 등은 요서에서 발굴된 대표적 홍산문화의 돌무지무덤이다.¹⁸⁾ 이 유적들에서는 정교하게 가공된 옥기 등 풍부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의 무덤임을 말해준다.

우하량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여신의 머리 부분이 출토되었고 여신을 모셨던 사원 터도 발견되었다. 이를 관장하는 종교지도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 유적의 연대는 우하량이 서기전 3630년, 동산취가 3535년, 호두구는 동산취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요서 지역의 것과 같은 양식의 돌무지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유적인 함경북도 선봉군 서포항, 청진시 농포리, 평안남도

1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塚群發掘簡報」 『文物』, 1986年 8期, 1~17쪽.

孫守道·郭大順, 「牛河梁紅山文化女神頭像的發現與研究」 『文物』, 1986年 6期, 19쪽.

----, 「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簡報」 『文物』 1984年 11期, 1~11쪽.

方殿春·劉保華,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發現」 『文物』, 1984年 6期, 1~5쪽.

온천군 궁산, 평양시 금단리, 강원도 춘천시 교동 등에서는 옥기가 출토되었다.¹⁹⁾

내몽골 翁牛特旗 石棚山 후기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70여 자리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무덤에 따라 부장품에 차이가 컸다.²⁰⁾ 같은 시대 유적인 旅大市 小珠山 상층에서 출토된 질그릇은 대부분 빠른 속도의 물레를 사용하여 만든 것 이었다.²¹⁾ 빠른 속도의 물레 사용과 섬세하게 가공된 옥기는 전문 기능인이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내몽골의 赤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후기 신석기시대 유적인 東八家 유적에서는 자연석을 쌓아서 만든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사방 40미터에 이르는 중앙의 큰 건물을 중심으로 57채의 집자리가 있었다.²²⁾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시기의 성터가 遼寧省 凌原縣 南城子에서도 발견되었다.²³⁾ 이러한 성들은 당시에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 정도 규모의 성이 쌓아졌다면 이미 추장이 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요서지역에서 紅山文化는 小河沿文化를 거쳐 초기 청동기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로 발전하게 된다. 소하연문화에서는 빠른 속도의 물레를 사용하여 만든 질그릇이 출토되는데 이는 질그릇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능인이 출현했음을 알게 해준다. 기능인의 출현은 추방사회의 요소이다.

위의 유적들은 한반도와 만주가 동일한 문화권이었으며 후기 신석

19) 黃龍渾, 「新石器時代 藝術과 信仰」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674~680쪽.

20) 文物編輯委員會,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1979, 87쪽.

21) 遼寧省博物館 等, 「長海縣廣鹿島大長山高貝丘遺址」 『考古學報』, 1981年 1期, 66~70쪽.

22) 佟柱臣, 「赤峰東八家石城址勘查記」 『考古通訊』, 1957年 6期, 15~22쪽.

23) 윗글, 22쪽.

24) 앞의 주 20 참조.

기시대에 이미 酋邦사회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게 해준다. 고조선 지역의 후기 신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연대가 앞선 우하량 유적의 서기전 3630년을 이 지역의 추방사회 초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신석기시대의 뒤를 이은 청동기문화시기에는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돌곽무덤이 사용되면서 고인돌무덤이 새로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전보다 규모가 큰 성곽들이 하가점하층문화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하고 질이 우수하다.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사회성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구석기시대와 전기 신석기 시대는 band와 tribe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에는 소수 집단이 사냥(수렵), 고기잡이(어로), 그러모으기(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했으며 따라서 식료나 재물을 저장해 둘 수가 없으므로 소유권 개념이 없는 완전한 평등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 신석기시대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불박이 생활에 들어가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주거용 집터나 공동묘지에서는 그 규모나 부장품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식료 등 재산을 공유하는 평등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언제 쫘 출현했을까. 국가사회는 법이 제정되어 그것이 권력을 뒷받침한다.

합법적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다. 합법적 권력은 이전의 권력들 보다 훨씬 강하다. 법에 근거하여 전쟁을 할 수 있고 징집을 할 수 있으며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고고학적으로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국가사회 단계였지만 국가사회와 반듯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청동기시대보다 앞서 국가사회가 출현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청동기시대 이면서도 국가사회가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다.

국가사회 진입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법이 출현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조선에 법이 존재했음을 알게 하는 기록은 『漢書』 「地理志」에 보인다. 서주 초에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했는데 당시 조선에는 ‘犯禁八條’라는 법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세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²⁵⁾

“첫째, 살인을 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이를 면하려면 속죄금으로 한 사람 당 50만전을 몰아야 한다.” 등이다. 고조선은 기자가 망명했던 서기전 12~11세기 경에 이미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범금팔조에 대해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는 기자가 제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인 『한서』 「지리지」에는 기자가 망명했을 때 조선에는 범금팔조가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기자가 그것을 제정했다는 말하지 않았다. 범금팔조를 기자가 제정했다는 것은 후세에 중국에 유리하도록 윤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연대로 보면 한반도와 만주지역이 추방사회 단계에 들어서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고조선이 출현하였다. 고조선이 초기부터 국가사회였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고조선의 시작 연대인 서기전 2333년은 추방사회에 진입한 서기전 3630년(우하량유적의 연대)으로부터 무려 1300여년 뒤이며 초기 청동기시대 연대인 서기전 24~25세기보다도 늦다. 이러한 오랜 시간과

25)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

환경의 변화라면 고조선은 추방사회에 머물러 있었기보다는 그 초기에 이미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V. 맺는말

학자에 따라 고조선의 시작을 비파형동검문화시대(서기전 10세기경) 또는 세형동검문화시대(서기전 3~4세기경)부터 잡기도 하고 『관자』에 등장하는 서기전 7세기의 조선 또는 『사기』에 등장하는 위만조선(서기전 190년 경 건국)부터 잡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고조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는 한국 고대사 체계는 고조선, 준왕 정권, 위만조선, 한사군, 열국시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사료에 의하면 준왕은 기자의 40여세 후손이고 기자는 서기전 12~11세기경에 서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체계를 사료에 따라 분석하면 고조선은 기자가 망명 온 서기전 12세기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앞의 견해들은 고조선의 시작을 이보다 늦게 잡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사기』와 『상서대전』 등의 문헌사료에는 기자가 서주 초 서기전 12~11세기경에 고조선으로 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潛夫論』에서는 고조선과 기자조선의 국명을 한이라 불러 혼란을 주지만 고조선은 기자조선 등장 이전부터 연나라 가까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 점은 기자가 망명

은 뒤에도 그 동쪽에 고조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과 일치한다.²⁶⁾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와 만주의 후기 신석기시대는 추방사회였는데 가장 앞선 연대의 유적은 홍산문화의 우하량 유적으로서 서기전 3630년경이다. 이 연대를 추방사회 초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연대는 요서에서는 서기전 2410년경의 하가점하층문화가, 한반도 남부에서는 서기전 24~23세기 경의 전라남도 영암군 장천리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경기도 양수리의 고인돌 유적이 가장 앞서므로 한반도와 만주를 포괄한 고조선 영역의 청동기시대 개시연대는 서기전 25~23세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문헌에 고조선의 시작 연대로 전해오는 서기전 2333년은 추방사회의 초기 연대인 서기전 3630년보다 무려 1300여년 뒤이며 청동기시대 진입연대인 서기전 25~23세기보다도 늦다. 이러한 긴 기간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고조선은 추방사회에 머물러 있었기보다는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헌들은 서기전 11~12세기 경 기자가 망명했을 때 고조선에는 이미 犯禁八條의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미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한국문헌은 서기전 2333년경에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정치집단의 명칭은 조선(고조선)이었으며 최고 권력자는 단군으로 불리어졌고 초대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설사 그 집단이 국가사회 단계가 아닌 추방사회 단계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정치집단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26) 『三國遺事』 「古朝鮮」조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겨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기자는 서쪽에서 고조선으로 이주했으므로 고조선의 서부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명칭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 명칭이 처음부터 조선이었는지, 아사달이나 한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으로 바뀌었는지, 또는 이러한 명칭들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반도와 만주에 자신들에 대한 명칭을 가진 정치집단이 출현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집단의 명칭은 조선이었으며 고조선 또는 왕검조선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한국문헌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조선, 고조선, 왕검조선, 아사달, 한, 고조선의 시작연대, 추방사회, 국가사회

※투고일자 : 10.20 심사일자 : 11.3 게재확정일자 : 11.10

〈참고문헌〉

三國遺事

史記

詩經

尙書大傳

潛夫論

漢書

『管子』

『山海經』

김교경, 「단군릉에서 뼈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에 대하여」 『단군릉 발굴 보고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崔盛洛, 「靈巖 長川里 住居址」 2, 木浦大學 博物館, 1986

黃龍渾, 「新石器時代 藝術과 信仰」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Chan Kirl Park and Kyung Rin Yang, “KAERI Radiocarbon Measurements III” Radiocarbon, vol.16, no.2, 1974.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中國考古學中碳14年代數據集』 文物出版社.

K. C. Chang, Shang Civiliz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中國考古學中碳14年代數據集』 文物出版社.

<Abstract>

The Existence of the Old Choson : An Approach with Common Sense

Yoon, Nae-Hyun

Scholars variously assume the beginning era of the Old Choson as the periods of the flute style daggers (the tenth century B.C.) and the slim daggers (the fourth to third century B.C.), the Choson documented in the Guanzi(管子) (the seventh century B.C.), and the founding of the Wiman Choson (around 190 B.C.).

These ideas deny the existence of the Old Choson. The commonly accepted scheme of early Korean history puts the Old Choson, the regime of King Chun, the Wiman Choson, the Four Han Commanderies, and the Multi-state period in the chronological order. According to historical sources, King Chun was a descendent forty generations after Kija who is said to have exiled to the Old Choson from the Western Zhou in the twelfth to eleventh century B.C.

If we follow this scheme, the Old Choson must have existed before the twelfth century B.C. However, the former ideas see the beginning of the Old Choson later than the twelfth century. This in turn means that the scholars use the term Old Choson without acknowledging its real existence.

The Shiji(史記) and Shangshu dazhuan(尚書大傳) record that Kija(箕子) exiled to the Old Choson in about the twelfth to eleventh century B.C.,

indicating the existence of the Old Choson beforehand. Although the Qianfulun(潛夫論) names the Old and Kija Chosons as Han and thus makes some confusion, it clearly states that the Old Choson did exist to the east of Yan even before the appearance of the Kija Choson. The location of the Kija Choson to the west of the Old Choson in the text corresponds with the record in the “Old Choson” section of the Samguk yusa(三國遺事).

Archaeological materials demonstrate that the late Neolithic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was the chiefdom society. The earliest among the sites is Niuheliang(牛河梁) of the Hongshan Culture(紅山文化), dated around 3630 B.C. and represented the early stage of the chiefdom society.

The earliest Bronze Age relics are the Lower Xiajiadian Culture(夏家店下層文化) of Liaoxi around 2410 B.C. and the residential site of Changcho'nli at Yong'am, Southern Cholla province about the 24th to 23rd century B.C. and the megalithic site of Yangsuli, Kyonggi province around the 25th to 23rd century B.C. Thus, the beginning era of Bronze Age in the Old Choson areas encompass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ld Choson could be about the 25th to 23rd century B.C.

In this regard, the 2333 B.C., the traditional founding year of the Old Choson is more than 1300 years later than the 3630 B.C. which is the early stage of the chiefdom society and even later than the beginning of Bronze Age, the 25th to 23rd century B.C. It is likely that the Old Choson already advanced into the state level rather than the chiefdom in the development.

The Korean texts such as the Samguk yusa(三國遺事) and Chewang ungi(帝王韻紀) say that the name of the po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round 2333 B.C. as Choson (the Old Choson). They also call its highest ruler as Tangun(檀君), designating the first Tangun as

Wanggom(王儉).

Although the level of the polity was the chiefdom level rather than the state, there is no doubt that they had their own name. That many ethnic groups in the world such as the American Indians have their own names supports this idea.

It is not clear at this point that whether the polity's name was Choson from the beginning, transferred after Asadal(阿斯達) or Han(韓), or used these names simultaneous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fact that a self-named political entity did emerg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t that time. The polity's name was Choson, as the Korean texts designate it as the Old Choson or Wanggom Choson as well.

※Key words : Choson, Old Choson, Wanggom Choson, Asadal, Han, Beginning era of the Old Choson, Chiefdom society, State society.